

용담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고위험시설 코로나19 의무검사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 피해조사·구제방안 마련 위한 건의문 국회 전달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단체장과 군 의회 의원들이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황인홍 무주군수

23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영등군·옥천군·금산군 군수들과 군의회 의원들 등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등군수)는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등

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의 순으로 릴레이 서명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각 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건의문 작성, 낭독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범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용담댐 방류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원인조사 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수해가 법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였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관련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진 점을 유사 사례로 들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4군 범대책위원회는 "쓰러져가는 농민들의 희망을 세우고 새롭게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보상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피해 주민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 등 근본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이용자·종사자 170여명 대상

장수군은 지역 내 노인 및 정신 시설 종사자, 노인주간보호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실시한다.

군의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취약기관 및 시설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주기적(2주 간격) 선제검사를 통한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했으며 검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장수군은 21~24일까지 관내 9개 노인주간보호 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요일별 검사를 진행 중이며 22일 기준 검사자 169명 전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군은 노인요양시설 내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병원 진료 등 부득이한 경우 외출금지, 출입자 통제, 시설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종사자의 공용 공간 이용 장수군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장수형 거리두기와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 감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은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고위험군 시설이므로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적 검사 시행으로 코로나19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사랑의 난방유 1리터 나눔' 운동

진안군 월동지원사업 공동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사랑의 난방유 1리터 나눔' 운동을 통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추진단은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배인재)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관장 정성원) 진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주연)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양정) 등 관내 4개 단체가 지난 11월 업무 협약을 맺고 '월동지원사업 공동추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사랑의 난방유 1리터 나눔' 운동은 저소득층에게 난방유 공급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는 사업이다.

추진단은 추운 겨울이 길고 오래가는 지형적 특성으로 보통 10월~4월까지 난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게는 난방유 공급이 부담되고 있어 모금을 통해 모

여진 성금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난방유를 제공한다. 현재 187명이 참여하여 47만원이 모금되는 등 주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이고 있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이웃사랑 캠페인 1포기 나눔 운동을 실시하여 8용량 100통 모집에 김장김치 141통이 모여,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한 바 있다.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민의 후원금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없이 지역주민의 나눔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사랑의 난방유 1리터 나눔' 모금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31일까지이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진단 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하반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금 확정

무주군은 2020년 하반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금 9억7,800만원을 확정하고 이날 31일까지 2,309농가에 개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2018.12. 제정·공포)에 근거해 조성한 1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농산물 수매와 저장, 판매에 따른 손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은 올해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무주농협·구천동농협)과 함께 수매(매취)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10월 말까

지 3,843농가가 생산한 4,993톤의 농산물을 수매해 전국 20여개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 출하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의 자가 선별유통 지원금 9억7,800만원을 포함한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의 수매매추손실금, 소규모 마을 공동수집장 운영, 농산물자가선별·유통 비용 등 22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무주군은 21일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용 심의회'를 열고 지급 안을 최종 확정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스키장 운영 전면 중단 등 특별 방역대책 발표

긴급 방역대책회의 갖고 5인 이상 식당 예약·사적 모임 금지 등 권고

무주군이 정부의 스키장 전면 운영 중단 등 3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지침에 따라 성탄절과 연말연시 등을 맞아 방역강화(기간 12.24~내년 1.3) 방침을 발표했다.



또 성탄절을 맞아 정주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요양원과 고위험 사업장 등 감염취약시설의 운영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은 정부의 방침대로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백기종 과장은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면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와 무주군의 방역수칙을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주군은 600여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송년회 및 5인 이상 모임, 해맞이 행사 금지 등 정부 방역지침에 철저히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전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장 선출

"동부권 잠재적 발전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충실할 것"

전춘성 진안군수가 전북 진안군·남원시·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 참여하는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6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춘성 진안군수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16일 코로나 19로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전 협의회장인 장영수 장수군수에 이어 전춘성 진안군수를 제6회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장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1년 간이며, 1년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장은 동부권 시군 발전을 선

도하고 상호 역량 결집 및 동반자적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전춘성 군수는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해 전북도 및 정치권과 공조하고, 지방균형 뉴딜 사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며 동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의회, 코로나19 청정 '장수' 지킴이 캠페인

장수군의회는 김용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3일 코로나19 청정 '장수' 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장수군의회는 장계시장을 방문하여 군민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물품을 배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홍보했다.

김용문 의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마스크 착용, 타지역 방문 자제 등 군민 개인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코로나 없는 장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기 전부터 각종 회의 시에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발맞추어 30일 예정되어 있던 장수군의회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도 취소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농기센터, 강소농 경영지원 사업 평가 '최우수'

장수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0년 강소농(強小農) 경영지원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장수군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경영개선실천 교육과 자율모임체의 정기 모임, 현장 견학, 정밀컨설팅을 꾸준히 실시하여 680명의 강소농을 육성해 왔다.

올해는 신규 강소농 20명을 배출했으며 강소농 정밀경영 컨설팅, 강소농가 농장간 제작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 10월 농업인포럼 도시소비자의 언택트 만남을 위해 개최된 '2020년 온라인 강소농대전'에 참가해 지역 특화 라이브 커머스 및 직거래 온라인장터를 통한 장수군 강소농 농산물 상품 홍보·판매에도 힘썼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